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1. 31 편집&발행인 김중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1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6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신감만부두·감만부두 1번 선석 운영사로 한국허치슨 선정
- 2 인천항, '23년도 목표 컨테이너물동량 345만 TEU로 설정
- 3 광양항, 높은 체선율 해소를 위한 제2석유화학부두 준공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로 홍콩과의 국경 재개방 및 항만 수입 품목 방역 조치 해제
- 2 인도, 해운 및 항만 인프라 현대화 추진
- 3 ONE, 미국 서안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2곳 인수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23년도 컨테이너 시장, 수요 부진 및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한해 전망
- 2 국토교통부, '23년도 골재수급계획 발표
- 3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감만부두·감만부두 1번 선석 운영사로 한국허치슨 선정¹⁾

-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신감만부두·감만부두 1번 선석의 신규 운영사로 한국허치슨터미널을 선정하고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함
- 해당 선석 운영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 공개경쟁입찰 공모 및 외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허치슨터미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함
- 이후 1개월간 허치슨의 사업계획 이행 방법, 추진 일정, 임대차 가계약서 세부 내용 등의 협상을 진행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됨
- » 한국허치슨은 기존에 운영하던 자성대부두 운영을 '23년 12월에 종료하고 해당 선석에 대해 '24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할 예정임

② 코로나로 중단된 크루즈 터미널 등 여객 운항 재개²⁾

- » 코로나로 2년 넘게 운항이 중단된 부산항 여객 노선이 잇달아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크루즈의 경우 '23년 3월 재개 예정
- 가장 먼저 운항을 재개한 여객선은 팬스타드림호(정원 545명)로 단기 국내 크루즈 상품인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를 지난 '22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2월까지 누적 승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함
- 한-일 정기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마도 노선을 제외하고 3개 노선이 운항을 재개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까다로운 방역 조치로 인해 하루 평균 승객이 24~94명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3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23년 부산항을 기항하는 크루즈는 총 80항차로 '19년 108항차 대비 감소했지만 크루즈 기항 재개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1) 뉴스1(2023.01.06.), <https://www.news1.kr/articles/4917671>(2023.01.18. 검색)

2) 한겨레(2023.01.15.),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5780.html>(2023.01.18.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만공사(IPA), 중고차 수출단지 제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집적화 추진³⁾

- » IPA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제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카마존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인천 남항 역무선 부두 인근지역에 약 12만 평 규모의 배후부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첨단 중고자동차 수출 클러스터를 단계별로 조성하는 사업임
- 전국 중고자동차 수출의 80~90%를 담당하는 인천항 남항 지역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집적화 하고 고도화 계획임
- 해당 부지에는 중고자동차판매장, 경매장, 검사장 등이 입지할 예정으로 인천항의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가 기대됨

② '22년 역대 최대 69개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운영한 인천항은 '23년도 목표 컨테이너물동량을 345만 TEU로 설정⁴⁾

- » IPA는 6년 연속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 TEU 달성에 힘입어 '23년도에 10개 이상의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유치하고 크루즈선 입항과 카페리 여객수송 재개를 추진할 계획임
- 신규항로 유치 외에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달성을 위해 IPA는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특화구역과 연계한 화물 유치, 배후단지 맞춤 물동량 창출 등 다양한 물동량 유인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3월부터 재개 예정인 크루즈선 입항과 한·중 카페리 여객수송 재개에 대비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정상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1.16.),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23642> (2023.1.19.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1.0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3529&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3.01.19.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높은 체선율 해소를 위한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준공⁵⁾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중흥부두·석유화학부두의 높은 체선율 해소를 위한 광양항 제2 석유화학부두를 12월 30일 준공함
- 광양항의 기존 석유화학부두는 플라스틱 등 각종 화학제품에 기초가 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부두임
- 중흥부두·석유화학부두는 체선율이 최대 42%까지 기록함에 따라 물류비 증가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 우려되어 왔음
- 이에 여수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8년부터 총 사업비 414억 원을 투자(정부 30%, YGPA 70%) 하여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번 사업의 완료로 석유화학부두에서 연간 약 204만 톤 물동량을 추가 처리 가능함에 따라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2.12.29.), <https://yeosu.mof.go.kr/ko/board.do?menuIdx=3809&bbsIdx=95802>(2023.01.02. 검색)

②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유보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전략적 유보지에 대한 입주참여기업 평가 결과 국양로지텍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 YGPA는 신규 물동량 창출과 기항서비스 증대를 위해 글로벌 선사 및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측배후단지 내 전략적 유보부지 13만 m² 입주기업을 공모함
- 그 결과 국양로지텍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국양로지텍은 장금상선이 출자한 기업임
- 국양로지텍은 총 49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입주가 완료될 경우 내륙 주요 산단의 신규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연 7만 6,000TEU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IMO Class 1,2 위험화물 장치시설 확보에 따른 얼라이언스 환적물량 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1.03.), [https://www.ygpa.or.kr/kr/ 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367&category=\(2023.01.05. 검색\)](https://www.ygpa.or.kr/kr/ 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367&category=(2023.01.05.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산업재편 대비 울산항 개발계획 재검토⁷⁾

» UPA는 급변하는 물류·에너지 등 산업재편에 대비해 울산항 항만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함

- 재검토에는 온산 남신항(오일허브 2단계 포함) 개발사업과 울산본항 일반부두 개축 등이 포함되며, 총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월 중으로 울산항 항만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임
- 1년 정도의 용역을 통해 남신항 개발예정지역의 평면계획과 울산본항의 일반부두 개축 등을 재검토할 계획임

② UPA, 선사대리점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인센티브 도입 및 시범운영 시작⁸⁾

» UPA는 1월부터 3월까지 울산항 입출항 액체화물선의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시작함

- 이번 인센티브 시범운영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이하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하고 실적에 따라 시범운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임
- 울산항은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았으나 주력 선종인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등 액체화물 선박의 참여율이 낮았는데, 그 이유로 액체화물 선의 비정기적인 운항 특성과 대다수가 행정업무를 선사대리점에서 대행하기 때문임
- 따라서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 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임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제도효과 검증과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강화 도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경상일보(2023.01.04.),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835>(2023.01.05. 검색)

8) 에너지경제(2023.01.06.),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106010001447>(2023.01.12. 검색)

- 한편 UPA는 선박 배출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 감축을 위해 '19년 12월부터 VSR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VSR 인센티브를 10% 올린 바 있음

③ 울산항~말레이시아 페낭항 간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⁹⁾

- » 완하이 라인즈(Wan Hai Lines LTD.)는 선박 5척을 투입해 울산항 기항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함
- 신규 컨테이너 항로는 울산항을 주 1회 기항하며, 기항지는 말레이시아 페낭, 포트클랑, 파샬구당, 싱가포르, 홍콩, 카오슝, 타이페이, 인천, 광양, 울산, 부산임
- 작년 말 기준, 울산항에는 인트라아시아 항로 31개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UPA는 이번 신규 항로 유치로 울산항에서 연간 약 2만 TE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9) 연합뉴스(2023.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6108700057?input=1195m>(2023.01.19.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당진항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로 정기노선 15개로 확대¹⁰⁾

- » 평택시는 지난 10일 CNC Line이 평택항에 컨테이너 신규항로를 개설했다고 밝힘
- CNC Line은 CMA-CGM의 자회사로, 모회사인 CMA-CGM은 전 세계에 14개 자회사를 두고 257개 항로를 기반으로 160개국, 420개 무역항을 기항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1만 명에 달하는 세계 3위 규모의 프랑스 국적 선사임
- 이번에 개설된 신규 컨테이너 항로는 주 1항차로 평택, 다렌, 텐진, 칭다오, 산터우, 홍콩, 셔코우, 난샤, 마닐라, 디바오를 기항하는 정기 항로임
- CNC Line은 'CMA-CGM ELFFEL'호 등 4,500TEU급 컨테이너 전용선 4척을 평택항에 순환 투입하며, 이는 평택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크기 중 규모가 가장 큰 선박임
- 한편 이번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연간 3만 ~ 4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평택항 일자리 창출, 하역 및 육상운송 등 관련 업계의 매출 향상이 기대됨
- 또한 기존 컨테이너 정기노선 14개 노선이 15개 노선(중국 8, 동남아 6, 일본 1)으로 확대됨에 따라 항로 다변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해상교역 활성화, 물동량 증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0) 평택시 보도자료(2023.01.10.),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ld=0403060000&bldx=282526&ptldx=90>(2023.01.13. 검색)



6) 포항항

① 영일만항 인입 철도 열차 운행 재개¹¹⁾

- » 해상물동량 감소로 중단됐던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 열차 운행이 19개월 만에 재개됨
- 인입 철도는 항만이나 산업단지와 같은 특정 지역 안에서 물품을 기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든 철로임
- '20년 7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해상운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상물동량이 급속하게 줄면서 '21년 5월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됨
- 계획된 운행구간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강릉 안인역으로 우드펠릿을 연간 14만 톤 운송할 예정임
- 1월과 2월에는 주 3회(왕복) 열차를 운행하고 앞으로 물동량과 열차 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임

11) 경북도청 보도자료(2023.01.16.),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265654701&B_STEP=265654700&B_LEVEL=0&key=0&word=&p1=0&p2=0&V_NUM=5288&tbbcode1=bbs_bodo\(2023.01.18. 검색\)](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265654701&B_STEP=265654700&B_LEVEL=0&key=0&word=&p1=0&p2=0&V_NUM=5288&tbbcode1=bbs_bodo(2023.01.18.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23년도 동해신항 개발 예산 366억 원 확정¹²⁾

- » '23년 1월 3일 '23년도 동해신항 개발 예산이 366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2년도 본예산 314억 원보다 16.6%(52억 원) 증액됨
-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계속사업은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158억 원, 방파호안 축조 97억 원, 진입도로 72억 원, 연결도로 10억 원, 관리부두 등에 1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석탄부두 5억 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5억 원이 편성됨
- 한편,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문제를 감소시키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13년부터 '30년까지 1조 8천억 원(민자포함)을 투입하는 '동해신항 개발사업'은 현재 북방파제 1.85km, 방파호안 2.3km 축조를 완료함
- 향후 석탄부두(1번선석), 기타광석(2번선석) 및 잡화부두(3번선석) 등 부두 3선석과 진입도로 0.76km, 연결도로 2.8km 등 부두 진·출입을 위한 임항교통시설이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임
- '기타광석(2번선석) 및 잡화부두(3번선석) 건설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석탄부두(1번선석) 건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지난 8월 진행이 중단되었으나 재정부두 사업으로 전환됨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3.01.03.),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95944\(2023.01.07. 검색\)](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95944(2023.01.07.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항에서 수출되는 기아 광주공장의 전년도 자동차 생산 소폭 증가¹³⁾

- » '22년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자동차 생산량은 셀토스 신차의 선방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22년 광주공장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47만 2,479대로 전년(45만 7,361대) 대비 3.3%(1만 5,118대) 증가함
- 코로나19 재확산,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물류대란 등 여러 악재에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임
- 여기에는 새롭게 선보인 뉴 셀토스의 판매 확대와 2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 등이 생산 실적 호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은 30만 4,314대로 전년(31만 6,098대)과 비교해 1만 1,784대가 줄었지만, 내수판매가 16만 8,165대로 '21년보다 2만 6,902대가 더 늘어 생산량 증가를 견인함
- 특히 광주공장은 수출이 64.4%를 차지하여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공장의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 대임
- '06년 31만 2,622대를 생산해 처음으로 30만 대를 돌파한 뒤 '10년 40만 대 생산 시대를 열었으며, '14년 처음으로 50만 대를 넘어선 뒤 '15년부터 생산량이 하락함

13) 연합뉴스(2023.01.05.),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125800054>(2023.01.13. 검색)

9) 대산항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권역 이용 외항선박 점검 강화¹⁴⁾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청권역 무역항의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2023년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시행함
- 점검 대상은 대산항·당진항·보령항·태안항 입항 선박이며, 토고, 시에라리온, 몽골 등 안전관리 취약 국가 및 30년 이상의 고선령 선박을 집중 점검하고 친환경 규제 현장점검,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안전 점검 강화 등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할 예정임
- 항만국통제는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등 국제협약 부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 기국통제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 등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설비 등을 확인하여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제도임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1.09.),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96001>(2023.01.19.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23년도 하반기 건설 확정¹⁵⁾

» 관세청은 국가예산 18억 원을 확보해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엑스레이 등 설비를 갖추고 '23년도 10월부터 군산항 통관장을 운영할 계획임

- 일주일에 세 차례 군산항~스다오항을 오가는 국제화물이 발생함에도 그간 군산항에 특송장이 없어 다른 항만으로 이동해 처리되어 왔음
- 연간 특송화물 650만 건을 처리할 경우 18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송화물 통관장 건설은 물동량 증가와 통관 기간 단축에 따른 기업 물류비 절감까지 기대됨

15) 2023 관세청 업무계획
(2023.1.11.),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71914>,
(2023.1.19. 검색)

11) 마산항

① 마산항, 친환경 항만순찰선 '바다가온호' 취항¹⁶⁾

» '22년 12월 22일 우리나라 관공선 최초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장비가 장착된 친환경 항만순찰선 '바다가온호'가 마산항에서 취항식을 가짐

- 바다가온호는 길이 26.5m, 폭 5.1m, 넓이 2.2m 규모의 46톤급 환경친화적인 알루미늄 선박으로 최대 13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최첨단 항해 장비와 긴급 상황 대처 기능을 갖춰 마산항의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 임무를 수행함
- 바다가온호는 약 48억 원을 투입하여 배터리 및 추진모터가 주기관과 함께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여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12.28.),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2.web?amode=view&idx=750127&gcode=1011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5894>(2023.01.12.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로 홍콩과의 국경 재개방 및 항만 수입 품목 방역 조치 해제

- »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홍콩과 중국 간 국경이 재개방될 예정임¹⁷⁾
 -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개방을 위해 홍콩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23년 1월 중순 이전에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항만 운영의 중단으로 열차 등 다른 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최근 다시 복귀됨에 따라 항만 정상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또한 중국은 1월 8일부터 콜드체인·비콜드체인 수입 품목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함¹⁸⁾
 - 중국은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항만의 콜드체인·비콜드체인 상품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1월 8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를 A급에서 B급으로 격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해제함
- »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침체된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 급증으로 교역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② 중국 내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주요 공장 및 항만 마비¹⁹⁾

-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제조 공장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홍콩에 기반을 둔 물류회사인 HLS는 일부 중국 공장 내 노동자의 50~75%까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공장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공장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픽업, 적재, 트럭킹 등 모든 사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어 설 연휴 이후 물량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중국 주요 항만 역시 공장 가동 어려움 등으로 컨테이너 선적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항만 내 노동자 부족으로 항만혼잡도가 높아지고 있음
 -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23년 첫째주 상하이항 컨테이너 대기 물동량은 32만 1,989TEU로 지난 상하이시 전면 봉쇄인 '22년 4월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됨
 - 트럭운송 지연에 따라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이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으로 상하이항 뿐만 아니라 닝보항과 칭다오항도 같은 기간 각각 27만 3,471TEU, 27만 7,647TEU로 대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17) Hellenic Shipping News(2023.12.29.),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hk-ports-prepare-for-normal-operations-with-official-confirming-border-reopening-is-in-sight/> (2023.01.18 검색)

18) Hellenic Shipping News(2023.12.30.),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to-lift-anti-covid-measures-for-all-imported-cold-chain-foods-non-cold-chain-items/> (2023.01.18 검색)

19) CNBC(2023.01.06.), <https://www.cnbc.com/2023/01/05/chinas-new-covid-surge-is-crippling-the-worlds-most-important-factories-and-biggest-ports.html> (2023.01.18 검색)

» 한편, 현재 이러한 상황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보도와는 상반된 내용이며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른 감염 급증으로 '23년 1분기까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아시아

① '22년도 싱가포르 항만물동량 러-우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컨테이너(-0.5%)와 벙커링(-4.1%) 모두 전년 대비 감소²⁰⁾

- » 싱가포르항의 '22년도 컨테이너물동량은 3,729만 TEU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총 물동량도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5억 7,769만 1천 톤을 기록함
- '22년도 전반기에 급격한 물동량 감소에 따라 '22년도 벙커링 총 물동량도 전년 대비 4.1% 감소한 4,795만 톤을 기록하였음, 하지만 세계 최대 벙커링 항만의 위치는 유지함
 -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2년도 전반기 싱가포르항의 벙커링 물량 감소는 러-우 전쟁에 따른 전 세계적인 벙커C유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임
 - 이에 싱가포르항은 벙커유 대신 LNG를 급유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 15개를 증설함

② K-Line, 선박 접안 자동화를 위한 AI 시스템 개발 추진²¹⁾

- » 일본의 해운회사인 K-Line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박의 조종 및 정박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임
- 이 프로젝트는 안전한 선박 운항을 개선하고 미래 자율 선박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에서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임
 - 현재 선박의 접안을 위해서는 선박의 특성 및 접안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선상승무원이 필요하나, 이를 AI를 포함한 최신 기술을 시스템으로 대체하고자 함
 - K-Line은 '25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발완료를 목표로 함

③ 인도, 해운 및 항만 인프라 현대화 추진²²⁾

- » 인도 정부는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해운 및 항만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임
- 인도는 '21년 10월 Gati Shakti라는 국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에 소재하는 경제구역을 다양한 형태로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계획임
 -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과 조율 과정을 통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여기에는 도로, 철도, 고속도로, 선박 및 항만 등 모든 물류공급사슬이 포함됨
 - 한편, 최근 물류 부문에 있어 인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20) Theedgemarkets(2023.1.16.),<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singapore-port-container-and-bunker-volumes-decline-2022> (2023.1.19 검색)

21) The Maritime Executive(2023.01.06.),<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japan-s-k-line-researches-ai-systems-to-automate-berthing-operations>(2023.01.12. 검색)

22) FDI Intelligence(2022.12.13.),<https://www.fdiintelligence.com/content/news/india-to-invest-around-25bn-in-shipping-and-port-infrastructure-81814>(2023.12.15. 검색)

④ 인도 주요 항만들의 화물물동량 '22년 4~12월 기간동안 화물물동량 약 9% 증가²³⁾

- » 인도의 12개 주요 항만들은 '22년 4~12월 기간동안 총 5억 7,663만 톤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약 9% 증가함
- 화물물동량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열탄, 점결탄 등 석탄 물동량이 35%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주요 12개 항만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품목은 석유 및 LPG/LNG와 같은 원유 제품으로, 같은 기간 176백만 톤이 처리되어 전년 대비 약 8% 증가함
- 반면, 펠릿을 포함한 철광석은 29.7백만 톤이 처리되어 전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함
- 주요 항만 중 물동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만은 Paradip항으로 인도 전체 물동량의 약 17%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1% 증가함

23) India Shipping News(2023.01.16. 검색), <https://indiashippingnews.com/indias-major-ports-see-9-per-cent-increase-in-traffic-handled-in-april-dec-period/> (2023.01.19. 검색)

3) 미주

①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모회사로부터 미국 서안 터미널 2곳 인수²⁴⁾

- » 일본 컨테이너선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는 모회사인 MOL와 NYK로부터 미국 서안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곳을 인수함
- ONE은 '19년 출범당시 모회사가 운영하는 북미 서안 터미널 사업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지분 양도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이번에 MOL의 트라팩(TraPac)과 NYK의 유센터미널(YTI) 지분 51%를 각각 취득하면서 관계 당국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임
- 트라팩과 YTI의 지분은 각각 투자펀드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맥쿼리가 49%씩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분을 계속 보유할 전망이다

② 칠레 산 안토니오 터미널, 선박 대형화에 따른 신규 크레인 도입²⁵⁾

- » 산 안토니오 터미널(STI: San Antonio Terminal Internacional)이 신규 도입하는 크레인은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컨테이너 크레인과 RTG(Rubber Tyred Gantry) 크레인 각각 2기씩임²⁶⁾
- 해당 장비 도입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STI에 6,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터미널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장비 도입에는 2,350만 달러가 투입되어 처리 용량은 160만 TEU로 늘어날 전망이며, STI는 칠레에서 두 대의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터미널이 될 전망이다

24) 코리아쉬핑가제트(2023.01.04.),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6781 (2023.01.05. 검색)

25) Port Technology(2023.01.1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ti-takes-delivery-of-new-sts-and-rtg-cranes/> (2023.01.12. 검색)

26) 코리아쉬핑가제트(2022.11.2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6370 (2022.12.01. 검색)

③ 미국 사우스 루이지애나항(Port SL), 4억 4,500만 달러에 애본데일 글로벌 게이트웨이(Avondale Global Gateway) 인수²⁷⁾²⁸⁾

» 미시시피 강을 따라 위치한 애본데일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과거 조선소로 사용되었던 부지에 조성된 254에이커의 글로벌 물류 허브이며,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음

- Port SL는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의 수출입 무역을 위한 최고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수로를 통한 무역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작년 말 포트아메리카와 MSC의 터미널 자회사인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TiL)는 미시시피강 하류 컨테이너 시설에 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사우스 루이지애나항 소유 하의 애본데일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루이지애나주 자금을 이용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개발 가능한 약 300에이커의 부지와 150만 평방피트의 전환가능한 창고 및 제조공간 등을 갖추고 있음

④ NY/NJ항 GCT 터미널, 안벽 크레인 높이 및 아웃리치 증축 예정²⁹⁾

» GCT New York LP는 리페르사(Liebherr)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교체 대신 증축할 계획임

- GCT는 '04년에 도입한 리페르사의 컨테이너 크레인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크레인의 리프트 높이는 36.57m, 아웃리치는 50m임
- GCT는 리페르사와 협력하여 크레인의 리프트 높이를 8.6m, 크레인의 아웃리치를 5m(2베이) 늘릴 예정이며, 크레인 확장이 끝나면 GCT에도 NY/NJ항에 기항하는 가장 큰 컨테이너선 수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 리페르사는 특허받은 재킹시스템으로 컨테이너 크레인의 교체 비용보다 몇 배 낮은 가격으로 컨테이너 크레인을 증축할 수 있음

27) Maritime Logistics Professional(2023.01.12.), <https://www.maritimeprofessional.com/news/port-south-louisiana-buys-avondale-382069>(2023.01.19. 검색)

28) Ship Technology(2023.01.1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south-louisiana-acquires-avondale-global-gateway/>(2023.01.19. 검색)

29) Port Technology(2023.01.1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liebherr-complete-sts-lift-height-extension/>(2023.01.19. 검색)



4) 유럽

① 하파그로이드(Hapag-Lloyd), '23년도 유럽항로 재편 및 얼라이언스 체제 밖 선복 이용 실시³⁰⁾

»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는 수급 관계 변화에 대응해 2월부터 유럽항로를 재편함

- 하파그로이드는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양명해운, HMM과 함께 디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오션 얼라이언스 멤버인 CMA-CGM으로부터 슬롯을 빌려 새 서비스 FE9를 시작함
- 디얼라이언스로서는 2월 10일부터 극동-북유럽항로 FE2를 개편하여, 독일 빌헬름스하펜에 기항을 시작할 예정임
- 한편, 디얼라이언스 체제 밖에서 파나막스형 8척으로 단독 운항해 온 중국-유럽항로 CGX는 2월 1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할 예정임
- 컨테이너선 시장은 작년 중반부터 운임 수준 약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파그로이드는 경쟁 얼라이언스 선사의 선복을 이용하고 자사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투입 선복량 감축, 아시아-유럽 간 루프 수 유지, CMA-CGM에서의 자사 선복 새로운 화물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3년은 2만 TEU 이상의 메가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선복량 과다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 선사는 현재 결편 등의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 동맹을 초월한 선복 이용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됨

② 유럽, 코카인 등 마약 다량 유입에 우려³¹⁾

» 최근 앤트워프-브뤼헤항, 로테르담항 등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항만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

- 앤트워프-제브뤼항 항만공사는 '22년 109.9톤의 코카인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21년 89.5톤에 비해 20톤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임
- 로테르담항의 경우 '21년 70톤, '22년 52.5톤의 마약이 적발됨
- 두 항만 당국은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이 컨테이너 안과 배 밑바닥 등에 숨겨져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유럽 내 마약 수요가 커짐에 따라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두 지역의 범죄 조직 규모와 공급 야욕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 각 터미널의 수만 개의 컨테이너 중 마약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모든 컨테이너를 스캔하며 항만의 물류 속도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각 항만공사는 세관 통제 강화, 수사관의 마약 밀수 관련 정보 확보 등을 통해 조치할 것이며, 한편 항만 자동화를 통한 인적 요소 개입 차단도 밀수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힘

30) 쉬핑뉴스넷(2023.01.18.),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93>(2023.01.18. 검색)

31) Euronews(2023.01.10.), <https://www.euronews.com/2023/01/10/antwerp-takes-over-from-rotterdam-as-europes-leading-port-for-cocaine-seizures>(2023.01.11.검색)

③ 유럽 CCS(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항만 및 해역 인근에서 다수 진행 및 계획³²⁾

- »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깊은 땅 속에 있는 저장고에 보관하는 CCS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IOGP(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약 70개의 CCS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에서는 북해에 20mtpa 용량의 저장 부지를 개발하여 수소 생산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Smeaheia 프로젝트, 북해에 4~8mtpa 용량의 저장 부지와 이산화탄소를 수용할 육상 터미널을 개발하는 Errai 프로젝트 등이 예정되어 있음
- 독일에서는 빌헬름스하펜항에 이산화탄소 수출 터미널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를 북해 저장 부지로 선박과 파이프를 통해 수송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불가리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CC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32) Reuters(2022.12.28.),<https://www.reuters.com/world/europe/carbon-capture-storage-projects-across-europe-2022-12-28/>(2023.01.03.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보타니항(Port of Botany), 비상사태 단계적 대응 테스트 실시³³⁾

- » NSW(New South Wales) port는 1월 7일 액체부두에서 화학물질 유출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실시함
- 비상 대응 프로토콜 테스트 참가자들은 부두에서의 대피, 비상 경고 발령, 화학물질 유출 방지, 확산 억제 및 제거 등의 작업을 실제 수행함
- 보타니항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 테스트로 대응 체계의 미세 기능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비상 대응 관련 정책 개선 사항을 논의함

② 호주 포트헤들랜드항(Port of Port hedland), LNG bunker링 사업추진³⁴⁾

- » 세계 최대의 철광석 수출 항만인 포트헤들랜드항은 광석운반선의 LNG 연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 LNG 해상연료 생산 및 bunker링 사업을 추진함
-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PCF(Pilbara clean fuels)와 Oceania marine energy와 협업으로 추진되며 해상연료 생산, 저장, 운반 및 급유 시설 개발이 포함됨
- 포트헤들랜드항은 파이프라인 LNG를 해상 LNG 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LNG 플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연간 1.0mtpa(Million ton per annual), 즉 연간 100만 톤의 LNG 해상연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33) Daily cargo news(2023.01.08.),
<https://www.thedcn.com.au/news/bulk-trades-shipping/port-botany-tests-chemical-emergency-response/>
(2023.01.10. 검색)

34) The maritime executive(2023.01.16.),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agreement-for-lng-marine-production-and-bunkering-at-port-hedland>
(2023.01.31. 검색)

6) 아프리카

① 이집트 수에즈항, AP port 그룹과 터미널 개발 및 운영 협의³⁵⁾

» 이집트 수에즈운하당국은 수에즈항에 30대의 STS(Ship-to-ship) 크레인과 새로운 1,000m 규모의 접안시설 건설을 지원, 기존 500m의 안벽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수에즈항은 이집트 정부, AD ports 그룹과 새로운 터미널 개발 및 운영에 대해 협의 중임
- AD ports 그룹은 경제 도시, 항만 물류 및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포트폴리오 운영 기업으로 이번 프로젝트 투자는 이집트 내의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세 번째 투자임
- 수에즈항은 프로젝트 초기 자본금 8,00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 기금을 조성했으나 투자자에게 운영권은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5) Africa Port(2023.01.11.), <https://www.zawya.com/en/economy/north-africa/ad-ports-in-talks-over-developing-egypts-suez-port-che5akmr>(2023.01.17.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2년 10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0.4% 감소³⁶⁾

» '22년 10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한 139.5 포인트 기록

- 중국과 아프리카 지역의 물동량이 전월 대비 2.3%, 40.1% 감소하면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아시아(중국 제외)와 북미 지역의 긍정적인 성과로 하락세를 일부 부분 상쇄함
- 아시아(중국 제외)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는 전월 대비 1.6% 소폭 개선되어 130.2 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수준인 131.9 포인트에 못 미친 수준임
- 북미 지역 역시 전월 대비 0.9% 소폭 향상됐지만 전년 동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1월에는 중국 물동량의 상승세가 기대됨에 따라 항만물동량 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6) Drewry,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3.01.18. 검색)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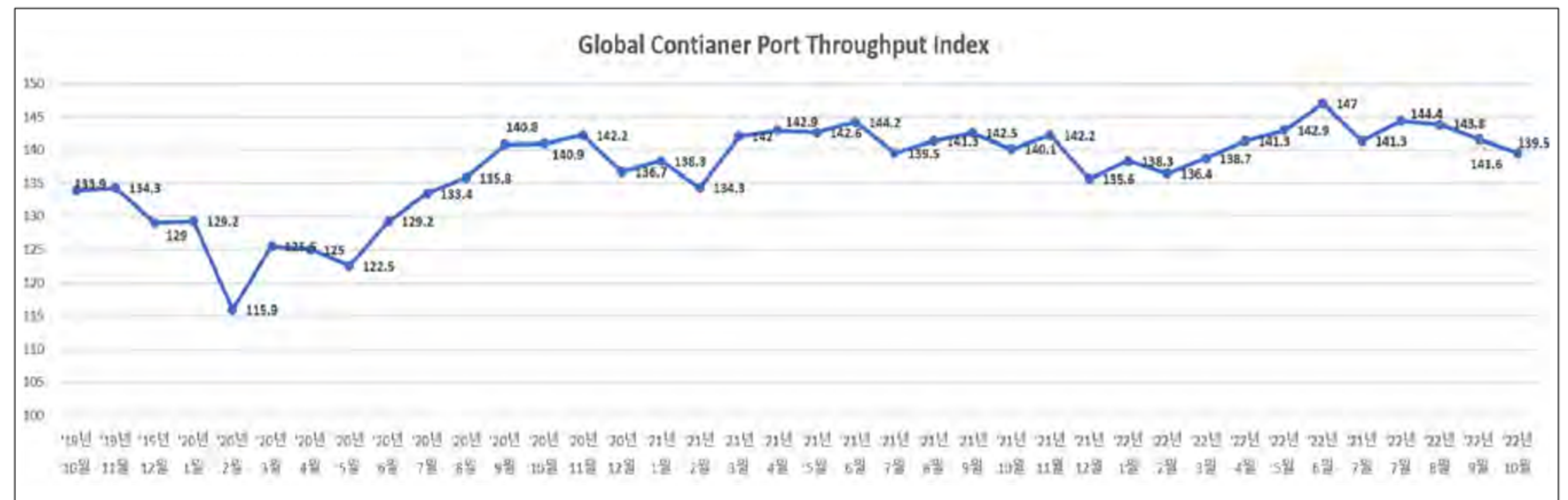
지역	2021년	2022년		전월대비	전년대비
	10월	9월	10월		
Global	140.1	141.6	139.5	-1.5	-0.4
Greater China	150.1	157.8	154.2	-2.3	2.7
Asia(excl. China)	131.9	128.1	130.2	1.6	-1.3
Middle East&South Asia	136.5	136.3	134.5	-1.3	-1.5
Eroupe	122.5	117.9	115.3	-2.2	-5.9
North America	164.9	159.8	161.2	0.9	-2.2
Latine America	131.9	133.4	131.9	-1.1	0.0
Africa	98.8	124.3	74.4	-40.1	-24.7
Oceania	133.6	150.7	146.7	-2.7	9.8

주: 2012년 1월=100

자료: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3.01.18. 검색)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처리지수



자료 :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3.01.18. 검색)

② '23년 컨테이너 시장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³⁷⁾

- » 코로나 기간 동안 컨테이너 운송 부문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선박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컨테이너 무역량은 재고 과잉 및 고금리 정책에 따른 주택 시장 및 소비자 가처분 소득 압박 등으로 '23년 상반기까지 침체될 것으로 전망
- 컨테이너 선박량은 '24년과 '25년 모두 7%대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폐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 증가세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반면, 컨테이너 항만의 혼잡은 올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로 컨테이너 운송의 심각한 공급 중단 및 혼잡을 유발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3년에는 대부분 혼잡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실제 컨테이너 선박의 정시율은 작년 11월 기준 56.6%로 전년 동월 대비 4.7%p 향상되는 등 '21년 평균 정시율인 30~40% 수준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³⁸⁾
- »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22년 하반기부터 극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요 대비 공급량 증가로 인해 하락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37) Seatrade Maritime(2023.01.05.),<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shipping-market-outlook-2023>(2023.01.18. 검색)

38) 쉬핑뉴스넷(2023.01.12.),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62>(2023.01.18. 검색)



2) 양곡

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2년 세계 식량 가격 최고치 기록³⁹⁾

» '22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엔 식량기구의 평균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년도 식품 가격지수는 평균 143.7포인트로 '21년도 대비 14.3% 상승함, '90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FAO의 5가지 식품지수 중 네 가지 품목(곡물, 육류, 유제품, 식물성 유지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마지막 품목인 설탕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식품 가격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은 이상기상,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 (2023.01.09.),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006, (2023.01.19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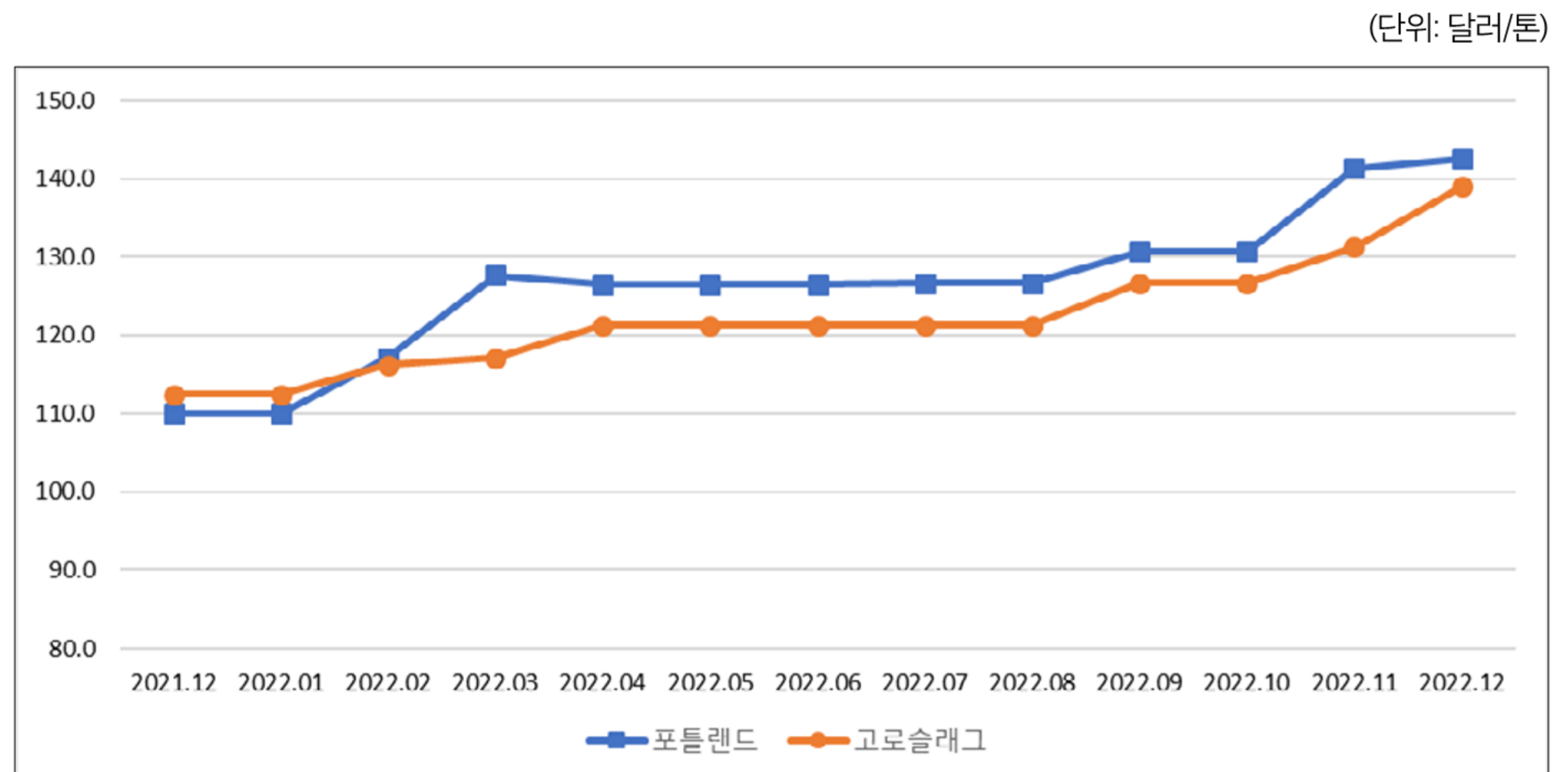
① 12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⁴⁰⁾ 2개월 연속 상승

»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하였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월 대비 5.9%,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1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포틀랜드 '22년 4월 제외)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월 110.0p 및 112.4p에서 142.5p 및 139.0p로 상승함
- 한국전력의 전기세 인상에 따른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40) 국내 생산자가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통계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10.0	110.0	117.1	127.7	126.4	126.4	126.4	126.7	126.7	130.7	130.7	141.3	142.5	0.8	29.6
고로슬래그	112.4	112.4	116.3	117.1	121.3	121.3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139.0	5.9	23.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1.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1.24. 검색))

②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 제기⁴¹⁾

» 1월 17일 시멘트 업계는 '23년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고함

- 한국전력은 지난 1일부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소성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며 시멘트 제조원가의 30%~35%를 전기요금이 차지한다고 주장함
- 시멘트 가격은 '20년 톤당 7만 5,000원에서 '22년에만 두 차례 가격을 인상해 '22년 11월 톤당 10만 5,000원으로 인상됨
- 시멘트 업계는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 레미콘 등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함

41) 매일일보 (2023.01.17.),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80326\(2023.01.17 검색\)](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80326(2023.01.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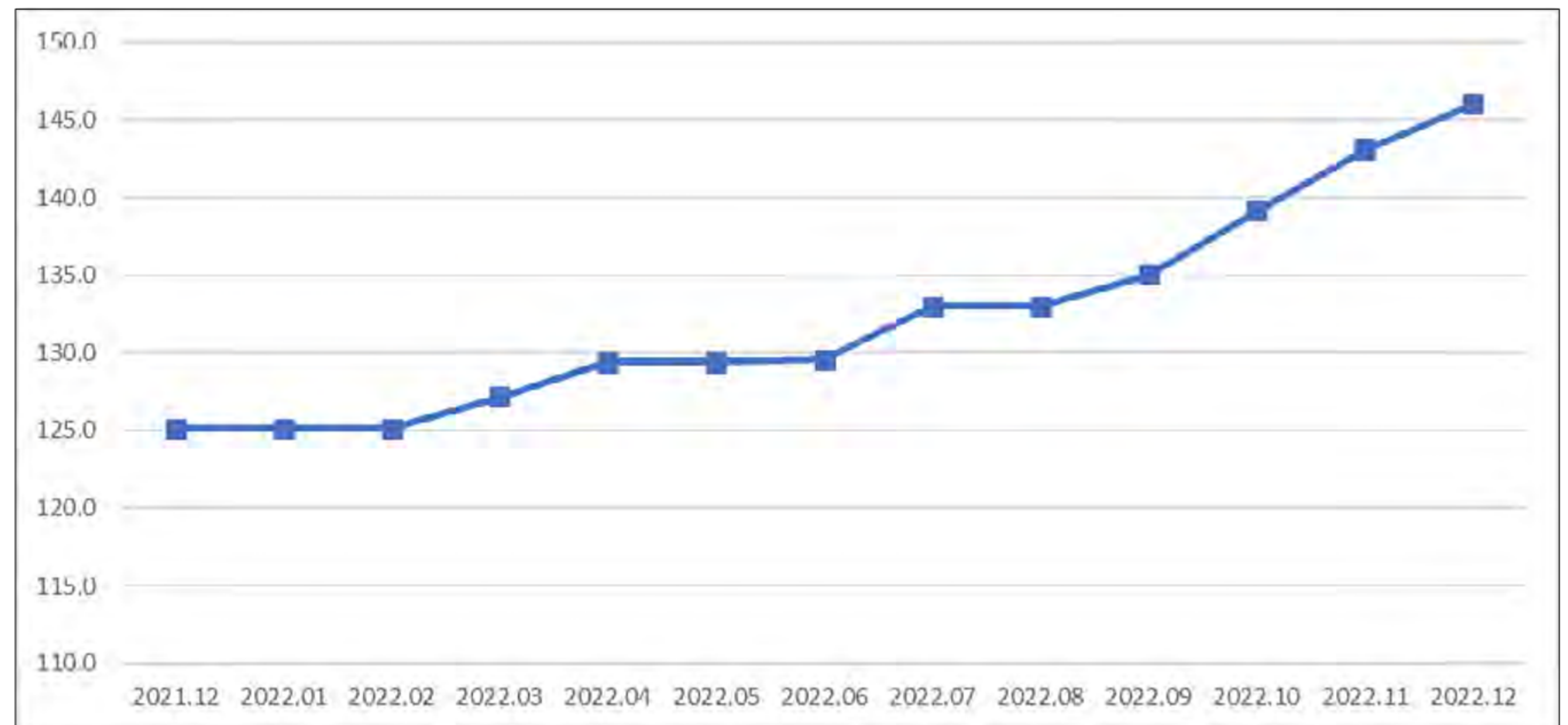
4) 모래

① 12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22년 4분기에 급격하게 상승하여 146.0p를 기록함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5.1	125.1	125.1	127.1	129.4	129.4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2.1	1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0. 검색)

② 국토교통부, '23년 골재수급계획 발표⁴²⁾

» '23년 골재수요는 건설투자 전망치 및 전망치 당 골재투입량을 고려해 238,987천 m³로 추정, 골재공급량은 252,131천 m³로 계획됨

- 모래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다골재 허가량은 12,608천 m³로 전체 골재공급량의 5.0%를 차지하며 연안 5,988천 m³ 및 EEZ 6,620천 m³ 구분됨
- '23년 바다골재 허가량은 전년(15,690천 m³) 대비 19.6% 감소해 모래 물동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신규 채취단지 지정 등 공급 확대와 채취 시 법정 비용 인하, 협의 절차 간소화 등 채취 여건 개선을 통해 바다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함

4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1.08.),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47826>(2022.10.20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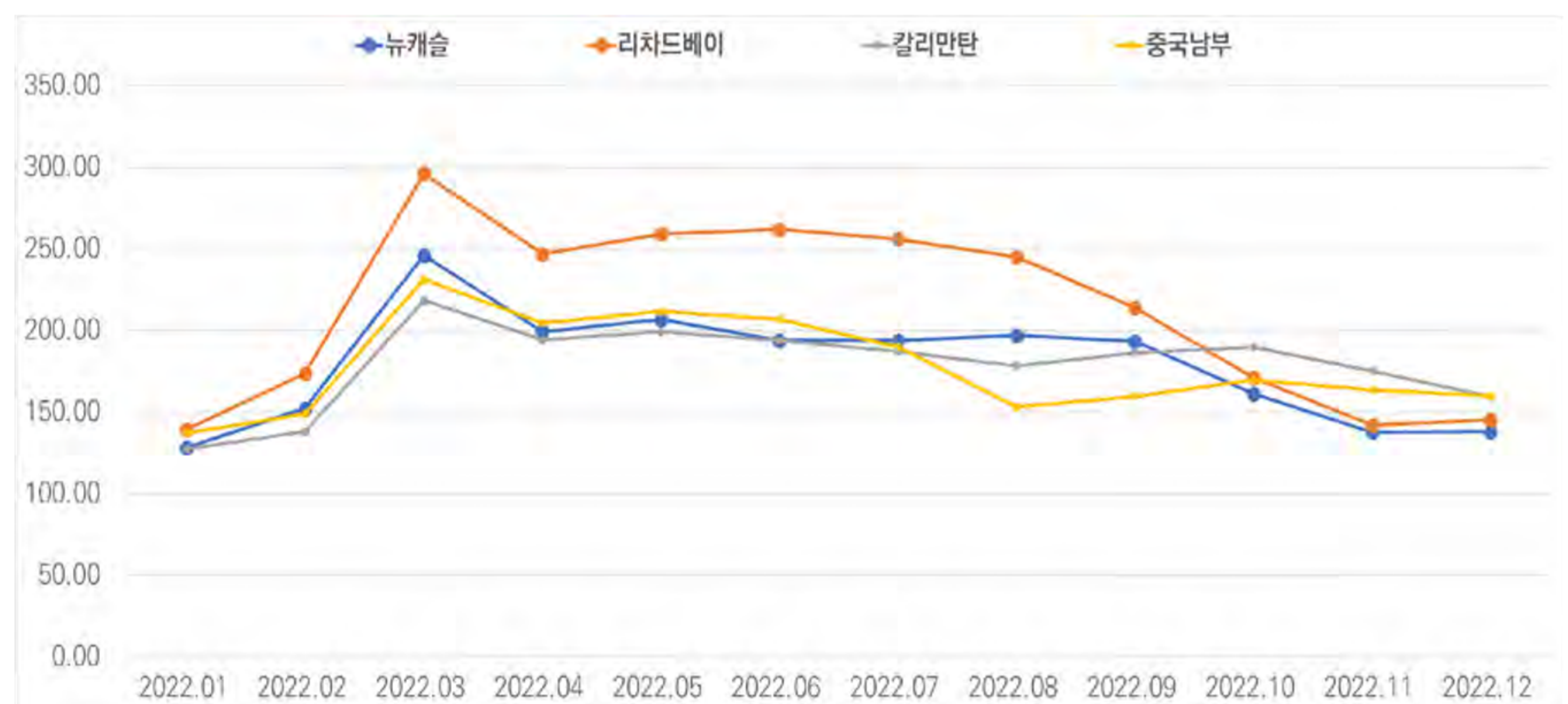
① '22년 12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⁴³⁾

» 11월에 이어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산업생산 부진으로 인해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함

- 유연탄의 지역별 가격은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0.2%)을 유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전월대비 9.0% 하락하여 전반적인 유연탄 가격의 하락세를 견인함

43)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3.01.20.),<https://www.kores.net/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1.20.검색)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28.17	152.41	246.02	199.36	206.77	193.76	193.80	196.98	193.37	161.15	137.73	138.03	0.2	1.3
리차드베이	139.37	173.64	296.10	246.95	259.10	262.05	255.95	245.11	213.87	171.01	142.18	145.21	2.1	1.2
칼리만탄	127.46	138.07	218.38	194.29	199.17	194.01	187.04	178.46	186.53	190.12	175.34	159.56	-9.0	0.9
중국남부	137.47	148.99	231.40	204.81	211.62	206.92	190.12	153.18	159.61	169.78	163.44	159.86	-2.2	0.8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⁴⁴⁾⁴⁵⁾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함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하여 전력망 보강 및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함
- 발전원별로는 '36년 기준 원전·신재생은 30% 이상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석탄의 경우, '29년 동해 1·2호기, '26년 당진 5·6호기를 폐기하는 등 현재 운행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8기를 폐기할 예정임
- 다만 현재 준공 중인 강릉안인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는 예정대로 '24년까지 준공할 예정임
- 석탄화력발전소 폐기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25년으로, '25년부터 '30년까지 당진 1~4호기, 보령 5~6호기, 삼천포 3~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동해 1~2호기를 폐기하고 LNG 발전소로 전환함
- '31년부터 '36년 사이에는 하동 5~6호기, 태안 5~6호기, 영흥 1~2호기, 당진 5~6호기를 폐쇄하고 마찬가지로 LNG 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임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할 시 폐기 대상 석탄화력발전소는 4기 늘어남
- 석탄발전소 추가 폐기에 따라 석탄발전량 비중은 '21년 기준 34%에서 '30년 19.7%, '36년 14.4%로 감소할 예정임

44)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01.12.),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124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73>(2023.01.18. 검색)

45) 매일노동뉴스(2023.01.1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96>(2023.01.18. 검색)



6) 철광석

① 철광석 가격 7주 연속 증가세 기록⁴⁶⁾

»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1월 둘째 주 기준 톤당 121.6달러로 7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1월 초 톤 당 80달러 수준이었던 가격이 약 47% 이상 상승함
-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철강업체는 철강의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워하고 있음

» 지속된 가격 상승으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철광석 가격 안정화 조치를 발표함⁴⁷⁾

- 철광석 거래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시세를 안정화 시킬 예정임

» 한편, 국내 철강업체는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이나, 중국광물자원그룹(CMRG)의 활동 재개 신호로 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음

- CMRG는 중국의 20대 철강업체가 철광석 구매 창구를 단일화한 것으로 연간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무역을 통해 국제 시세 및 수급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6)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1.18. 검색)

47) 대한경제(2023.01.17.),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161456384950873(2023.01.18 검색)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1.18. 검색)

7) 기타광석

① 12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3,409.7로 전월 대비 7.1% 증가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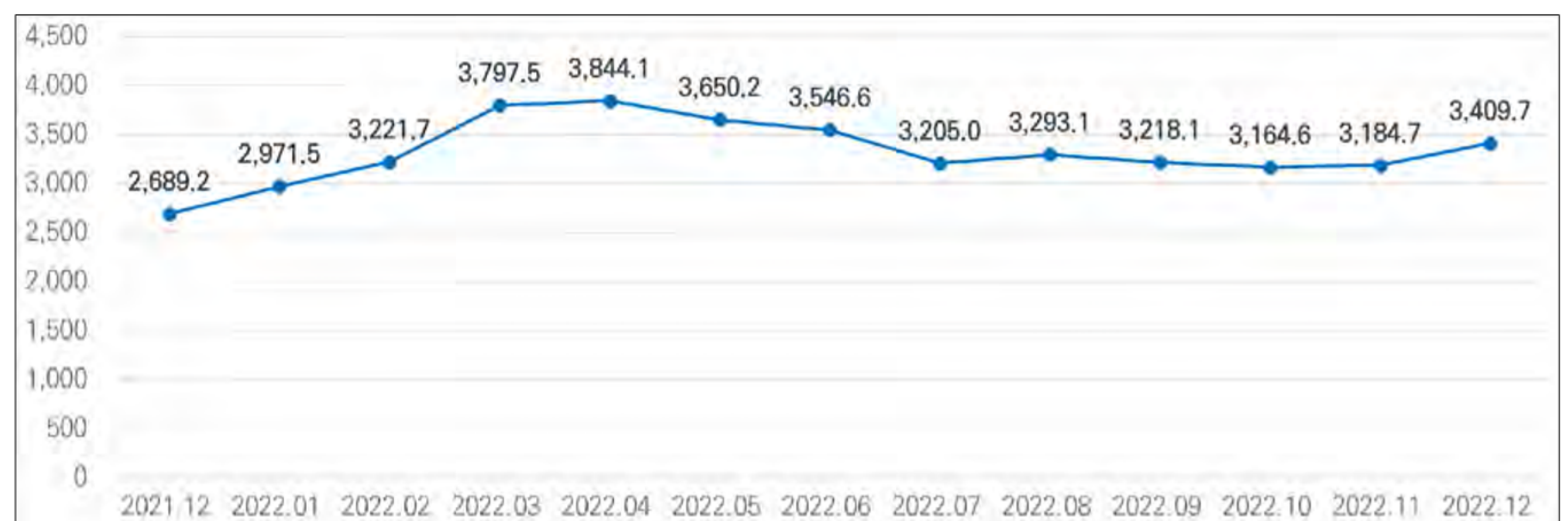
» '22년 4월 광물종합지수는 3,844.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12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함

-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과 중국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 기대 등의 영향으로 광물가격의 상승압력이 발생함
- 다만,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위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는 광물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48)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23.01.20.), <https://www.kores.net/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3.01.20.검색)

(단위: 달러/톤)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971.5	3,221.7	3,797.5	3,844.1	3,650.2	3,546.6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7.1	26.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영풍 석포제련소, '3년 내 시설개선' 조건 운영 허가⁴⁹⁾

»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영풍과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에 지난 12월 27일 통보함

-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4년부터 납·카드뮴 등 중금속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받음
-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전국 오염물질의 70%를 배출하는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기준을 설정, 업종 특성상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줄이게 하는 제도로 '17년부터 도입됨

49) 조선비즈(2022.12.27.),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5420?cde=news_media_pc(2022.12.29. 검색)

-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예기간은 '22년 말까지였음
-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22년 11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는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함
- 이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납과 포름알데히드는 1.4배, 카드뮴과 니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소, 벤젠, 이황화탄소는 2배 강한 규제를 받음
-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설치, 아연분말 취급시 밀폐조치 시행, 노후 반응기 교체, 제련잔재물 전량 반출·위탁처리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EU, 오는 3월 원자재법 도입 예정⁵⁰⁾

-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유럽에서도 유사한 '원자재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3월 14일 '핵심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임
- EU의 원자재법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 해당 법안에는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임
- EU는 원자재법을 통해 공급망 분야별로 전략적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자금조달 확대와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광물 생산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배터리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럽산 광물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 업계에서는 EU의 원자재법이 미국 IRA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법안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50) 이데일리(2023.01.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35476080&mediaCodeNo=257\(2023.01.12. 검색\)](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35476080&mediaCodeNo=257(2023.01.12. 검색))

8) 목재

① '22년 1~11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243.6만 m³로 전년동기 대비 13.6% 감소⁵¹⁾

- » 국내 수요부진으로 목재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목재류 수입물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목재펠릿만 유일하게 증가함
- '22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원목은 -13.6%, 제재목은 -12.0%, 성형목재는 -20.6%, 합판은 -11.9%인 반면 목재펠릿은 16.5% 증가함

51)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2.12.22.),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rZHAIQ2x96QNSd54oaXHLNclP89rgj2ssTpQJvkAMvbQ402CbzDOhGTRJgCYGPjl.frswas02_servlet_engine5?ntid=3177650&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1.13.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rZHAIQ2x96QNSd54oaXHLNclP89rgj2ssTpQJvkAMvbQ402CbzDOhGTRJgCYGPjl.frswas02_servlet_engine5?ntid=3177650&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1.13. 검색))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2년 누적 (1-11월)	2021년 누적 (1-9월)	증감률 (%)
원목(천m ³)	2,436	2,820	-13.6
제재목(천m ³)	1,719	1,954	-12.0
성형목재(톤)	88,097	110,974	-20.6
합판(천m ³)	1,276	1,448	-11.9
파티클보드(천m ³)	1,133	1,281	-11.6
섬유판(천m ³)	184	190	-3.2
우드펠릿(천 톤)	3,510	3,013	+16.5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2.12.2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rZHAiQ2x96QNSd54oaXHLNclP89rgj2ssTpQJvkAMvbQ402CbzDOhGTRJgCYGPjl.frswas02_servlet_

② 베트남, '22년 목재 및 목제품 수출 전년 대비 7% 증가⁵²⁾

- ▶ 지난해 베트남의 목재 및 목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58억 달러로 잠정 집계됨
- 지난 6일 베트남 공상부와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목재·목제품 수출은 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목제품은 25억 달러로 5.3% 줄었음
- 4분기 목제품 수출감소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가 하반기부터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4분기 실적이 주춤하면서 연간 목재·목제품 수출은 158억 달러로 전년대비 7% 증가했지만 목표치 165억 달러는 달성하지 못함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11월까지 약 80억 달러로 전년대비 0.57% 증가함
- 한편 베트남 목재임산물협회는 올해 세계경제가 점차 안정되면서 목재·목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52) 인사이드비나(2023.01.06.),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3>(2023.01.1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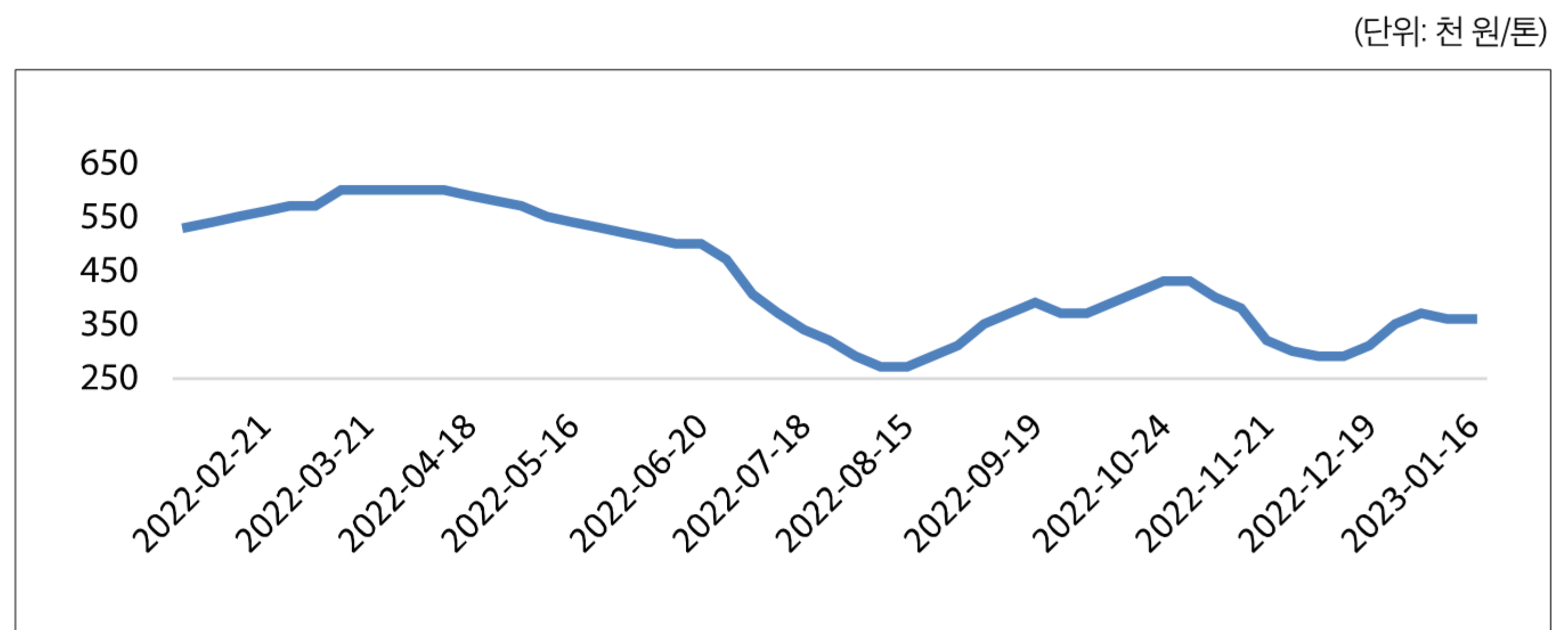
9) 고철

① 국내 고철 가격 2개월 만에 반등⁵³⁾

- ▶ 국내 고철 가격(경량A, B 평균, 제강용 대상 야드 도착도 기준)은 12월 셋째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증가한 후 약보합세를 나타냄
- 국내 고철 시장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됨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철근 가격이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 '23년 초반 고철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요인은 많지 않으나, 작년 11월 이후 철광석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고철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글로벌 선행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수입 가격은 1월 튀르키예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정책으로 전기로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함

53) 철강금속신문(2023.01.11.),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11/PS010111010100201B0001.pdf>(2023.01.11. 검색)

고철 가격 추이



자료 : 철강금속신문 가격DB(2023.01.16.), <https://snmtrend.snmnews.com/>(2023.01.11. 검색)

2 철스크랩 순환자원화 시행 예정⁵⁴⁾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의결되어, '22년 12월 31일 법 공포 이후 1년 뒤인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해당 법 제23조인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통해 철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신청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운반·보관·사용에 제한이 사라짐
- 이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임
- 한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는 순환자원 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만 있고 철스크랩 공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스크랩 고품질화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54) 철강금속신문(2023.01.04.),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02/PS010102010100701B0003.pdf>(2023.01.04. 검색)

10) 철재

1 '22년 중국·일본산 후판 수입 물동량 대폭 증가⁵⁵⁾

»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현대제철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 제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산 후판 매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후판 수출 물동량이 244만 4,979톤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에 수입 물동량은 195만 1,630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 중 일본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105만 6,497톤을 기록했으며, 국내 유통시장과 비조선용 시장에서 일본산 후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산 중후판 수입 대부분이 조선용으로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경우 도시 봉쇄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량을 저가에 한국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본 철강업계 역시 자국 수요부진과 재고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됨
- 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업계와도 대량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조선사들은 국내 철강 수급난에 따라 수입 의존도를 높여가며 후판 재고를 2개월 이상 유지한 것으로 드러남

55) 철강금속신문(2023.01.25.),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25/PS010125010100101A0001.pdf>(2023.01.25. 검색)

- 한편, 국내산보다 저렴한 해외 후판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후판 업계와 철강협회는 수입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철강사들의 덤핑 행위 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② 열간압연강판 가격 12월 정체, 1월 상승⁵⁶⁾

» 열간압연강판 12월 가격은 고금리를 비롯한 대내외 경기 상황으로 철강업계가 무리한 제품 매입 대신 필수적인 제품 재고만을 매입하며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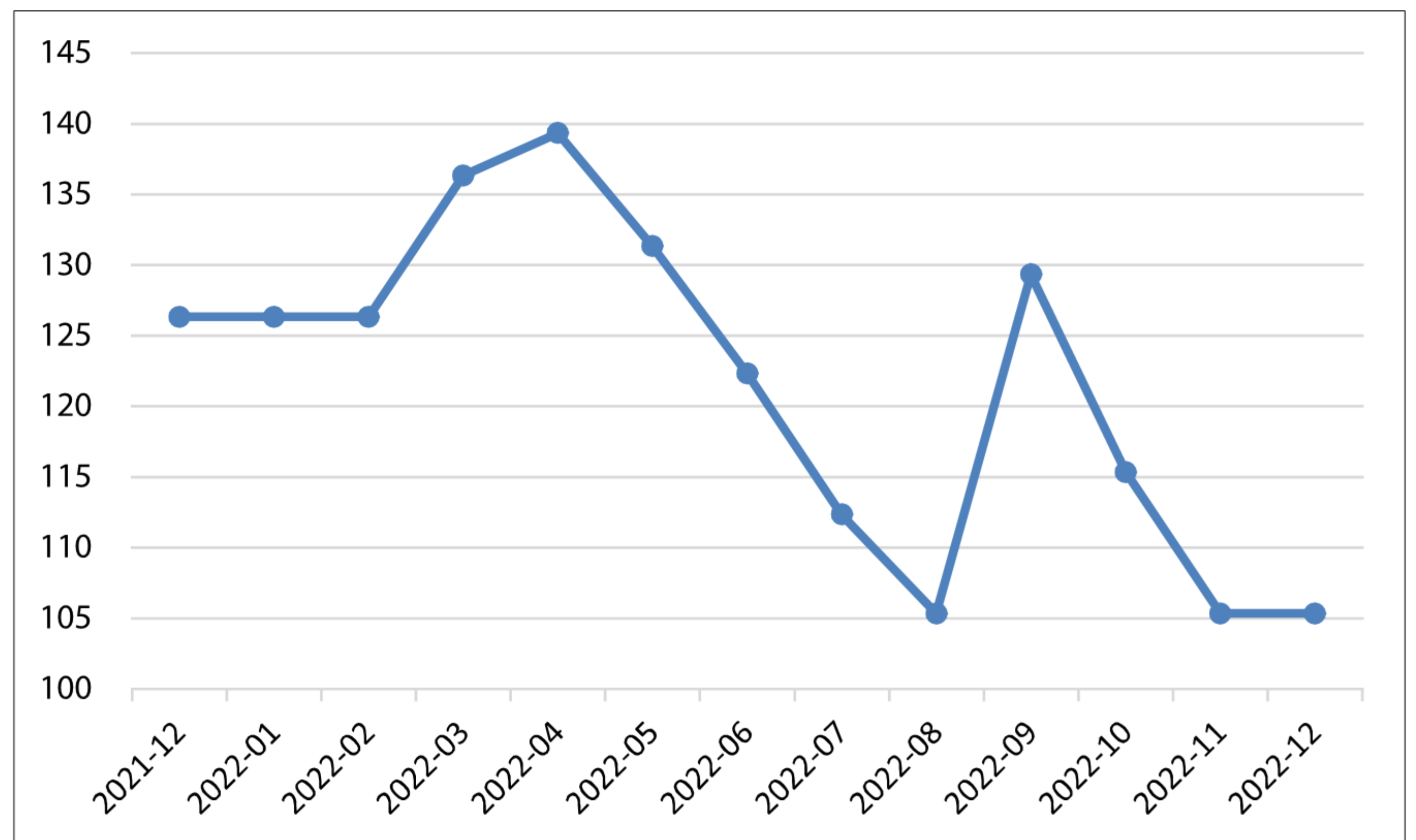
- 그러나 중국산 철강의 주문 가격 상승과 함께 포스코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글로벌 철강사들도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며 1월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제품 가격이 인상되기 전 매입을 통해 2~3월 제품 판매에 대비하려는 일부 유통업체의 전략과 더불어, 1월 25일 현재 톤당 13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열간압연강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⁵⁷⁾

56) 철강금속신문(2023.01.09.),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09/PS010109010100701B0002.pdf>(2023.01.25. 검색)

57) 철강금속신문(2023.01.25.),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25/PS010125010100701B0001.pdf>(2023.01.25. 검색)

(단위: 천 원/톤)

국내 열간압연강판 가격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01.21.), <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2023.01.25. 검색)

주 : 2022년 12월 가격은 12/1~12/31 조사가가격의 평균을 의미함



③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복구 완료 및 완전 정상 조업체제 돌입⁵⁸⁾

- »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17개 모든 압연공장 복구를 완료하고 1월 20일부터 완전 정상 조업체제로 돌입함
- 포스코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냉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가 모두 침수되는 사태를 맞았으나, 지난해 말 15개 공장을 복구한 데 이어 19일 도금 CGL 공장과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을 차례로 복구하는 데 성공하여 침수 135일 만에 제철소가 완전 정상화됨
- 향후 포스코는 정상 가동 설비를 대상으로 생산 안정화 및 효율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를 보완할 예정임

58) 철강금속신문(2023.01.25.),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25/PS010125010100201B0001.pdf>(2023.01.25. 검색)

11) 자동차

① 12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31,80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⁵⁹⁾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2월 내수는 할부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 우려에도 완성차 생산 증가로 누적된 대기수요가 해소되며 연중 최대 판매량 기록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1.4% 증가한 23,660대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연말 전기차 보조금 소진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전월 대비 29.5% 감소, 하이브리드차는 25.2% 증가함
- '22년 연간 내수는 친환경차 및 SUV 판매 인기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 감소로 높은 대기수요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2% 감소함
- » 수출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6개월 연속 20%대 증가세 기록함
-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229,292대로, '18년 11월(237,941대) 이후 월 최대 수출대수를 기록함
- 연간 수출은 국산 친환경차, SUV 등의 판매 호조세 및 환율 효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31만대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액 또한 고가 차량 수출 증가로 16.4% 증가한 541억 달러 역대 최대금액 경신함
- »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며 전년 동월대비 10.7% 증가한 353,405대 생산하며 4년만에 12월 생산대수 최대를 기록함
- 연간 생산은 러-우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각종 글로벌 악재로 반도체 및 부품 수급난이 지속되며 상반기 차질을 겪었으나 하반기 높은 회복을 보이며 전년 대비 8.5% 증가한 375.7만 대를 기록함

59)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01.2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7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1.25.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2. 12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전월비	동월비	1~12월	1~11월
내수	130,250	1,440,786	127,487	131,807	1,395,297	3.4	1.2	-3.2	-3.6
수출	183,485	2,040,572	217,519	229,292	2,311,904	5.4	25.0	13.3	12.3
(완성차 수출액)	4,230	46,465	5,398	5,428	54,103	0.6	28.3	16.4	15.3
생산	319,197	3,462,499	379,797	353,405	3,757,065	-6.9	10.7	8.5	8.3
(부품 수출액)	2,121	22,776	1,857	1,987	23,319	7.0	-6.3	2.4	3.3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1.2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7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1.25. 검색)

12) 잡화

① '22년 11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한 185억 1,6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3.7% 증가한 123억 2,700만 달러를 기록⁶⁰⁾

- » 11월 기계 산업 수출금액은 금속제품업(+27.0%)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특히 전기기계업(-34.8%)과 수송기계업(-10.5%)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 한편 11월 국내 기계 산업 수입은 수출과 정반대로 전기기계 부문(+3.7%)과 수송기계업(+22.3%) 부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3.7%) 증가함

(단위: 백만 달러, %)

'22년 11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2. 11				'22. 1~1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8,516	-12.9	12,327	3.7	197,951	-2.5	128,126	2.2
일반기계업	4,366	-6.5	3,632	-2.3	48,336	0.9	39,688	-2.9
전기기계업	2,725	-34.8	2,722	3.7	32,511	-19.5	26,811	11.8
정밀기계업	2,487	-12.5	2,285	-3.5	17,245	-1.8	25,858	-3.3
수송기계업	8,776	-10.5	3,127	22.3	89,109	2.0	2,934	6.7
조선	1,025	-70.3	137	29.0	14,757	-28.8	2,113	-16.5
금속제품업	1,162	27.0	561	-8.7	10,749	8.8	6,414	1.5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23년도 1월호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월호(2023.1.18.),<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3.1.19. 검색)

② '22년 12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구매관리자지수)는 48.4로 코로나 팬더믹이 절정에 달했던 '20년 4월을 제외하면 '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⁶¹⁾

» 가장 중요한 신규주문은 45.2로 전월 대비 감소(-2.0p)하였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와 생산지수도 각각 46.2와 48.5를 기록하였음

-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의 경우 '21년 12월에는 61.0이었으나 '22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8p 감소하며 '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ISM의 PMI 지수는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상태, 물가 등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해 수치화함
-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 ISM에 따르면 '22년도 12월 미국 내에서 성장을 기록한 제조업은 석유와 석탄산업 부문임

61) Trading Economics (2023.1.4.),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3.1.25. 검색)

13) 유류

① 12월 국제유가, Dubai, Oman,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월별 유가는 6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12월은 전월 대비 1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함

- 급등하였던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석유시장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3.2	83.5	92.4	110.9	102.8	108.2	113.3	103.1	96.6	91.0	91.2	86.3	77.2	-10.5	5.5
Oman	73.2	83.6	92.8	111.1	102.8	108.2	113.3	103.3	97.0	91.0	91.2	86.3	77.4	-10.2	5.7
Brent	74.8	85.6	94.1	112.5	105.9	112.0	117.5	105.1	97.7	90.6	93.6	90.9	81.3	-10.5	8.7
WTI	71.7	83.0	91.6	108.3	101.6	109.3	114.3	99.4	91.5	83.8	87.0	84.4	76.5	-9.3	6.7
평균	73.2	83.9	92.7	110.7	103.3	109.4	114.6	102.7	95.7	89.1	90.7	86.9	78.1	-10.1	6.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1.19. 검색)

② 이란 원유 생산량, 제재에도 불구하고 300만 b/d 기록⁶²⁾

» 이란 석유장관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최근 300만 b/d로 증가했다고 밝힘

- 다만, Platts 조사에 따르면 이란의 금년 11월 생산량은 256만 b/d를 기록함
- 미 트럼프 행정부가 '18년 제재를 가하기 전에 이란 석유 생산량은 380만 b/d이었으며, S&P에 따르면 300만 b/d 생산량은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임
-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는 이란의 현재 석유 생산 능력은 380만 b/d이고, 2023년 3월에 403.8만 b/d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③ 러시아 '23년 원유 생산량, 큰 폭 감소 전망⁶³⁾

» S&P Platts는 올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EU는 '22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제품에도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제재의 효과성 및 전쟁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 감소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100만 b/d 수준에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으며, OPEC은 약 85만 b/d, IEA는 140만 b/d, S&P는 최대 90만 b/d의 생산량 감소를 예측함
- S&P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선박 운송에 대한 대 러시아 제재가 약하고,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원유를 판매하려 하고 있어 생산량 감소폭이 기존 11월 예측(150만 b/d 감소)보다 줄었다고 밝힘
- 주요 기관은 약 10% 내외의 감소를 예상하지만, 러시아의 부총리는 제재 영향으로 5~7%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함

6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2.2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9. 검색)

6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1.0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1.05. 검색)

④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세⁶⁴⁾

» 독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후 카자흐스탄산 원유로 대체

- 카자흐스탄 송유관 운영사인 KazTransOil사는 지난 12월 29일 러시아 Transneft사에 '23년에 카자흐스탄 원유 120만 톤(2.4만 b/d)을 Druzhba 송유관을 통해 독일로 운송해줄 것을 요청함
- 독일은 기존 러시아산 원유를 카자흐스탄산 원유로 대체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EU의 러시아산 해상원유 수입 금지가 '22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Druzhba 송유관(러시아-유럽)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제재 예외 대상임
- 다만 Druzhba 송유관에 연결된 독일 Schwedt 및 Leuna 지역 정제시설은 제재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에너지부는 '23년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 원유 수요 증가로 수입원 다변화 추진

- 인도는 원유 도입국의 수를 늘려가는 등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에너지 연대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증대함과 동시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음
- 러-우 전쟁으로 인도는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낮은 가격의 원유 도입이 가능했으나, 미국산 원유의 수입 비율을 유지하는 등 에너지 부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는 러-우 전쟁 전 전체 원유 소비량의 약 60%를 중동, 약 14%는 서아프리카에서 도입했으나 브렌트유와 연동된 서아프리카산(대체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해지면서 러시아산 비중이 '21년 2.2%에서 '22년 약 15% 내외로 크게 늘어남
- 인도의 원유 수입국 수는 '06~'07년 21개에서 '21~'22년에는 39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중동, EU의 주요 석유제품 공급처로 부상

- '22년 EU는 전체 경유 수입의 50%(경유 소비의 1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러시아는 전체 경유 수출의 70%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등 높은 상호의존도를 보였으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영향으로 무역 흐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 및 G7 국가들이 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필요시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며, 프랑스, 독일 등 EU 회원국은 대러제재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은 신규 정제설비 확충으로 유럽향 석유제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석유금수조치가 중동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면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 및 사우디아람코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임

6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2023.01.03~01.17),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⑤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소한 독일, LNG 수입설비 지속 확대 계획⁶⁵⁾

»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독일 가스 사용량 중 러시아산 비중이 '20년 55%에서 '21년 약 20%로 감소함

-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공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서방 제재로 가스터빈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9월초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함
-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LNG 수입시설 투자를 기피했으나 최근 북해 연안 Wilhelmshaven에 자국 최초의 부유식 LNG 수입 터미널의 운영을 개시함
- 또한 독일은 지난 11월 카타르, 코노코필립스 등과 '26년부터 최소 15년간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독일은 '24년까지 LNG 수입설비 규모를 연간 37Bcm까지 확대하고 '28년에는 이보다 두 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LNG 수입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독일은 육상 인수설비와 해상 인수설비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5개의 해상 인수설비(FSRU)와 국책은행(KfW)의 1개의 육상 인수설비,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1개의 해상 인수설비와 2개의 육상 인수설비로 구분됨
 - 이번 동절기가 끝나기 전까지 3개의 해상 인수설비(연간 총 13.5Bcm)가 상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추가로 3개의 해상 인수설비도 상업운동을 시작하면 '24년까지 총 수입설비 규모는 연간 37Bc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27년부터 상업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3개의 육상 인수설비를 추가 가동하면서 '28년이 되면 LNG 수입설비 규모가 '24년 대비 두 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⑥ LNG 프로젝트, '23년에도 투자 증가 예상⁶⁶⁾

» 자산관리 회사인 Stanford C. Bernstein은 '23년에도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사항으로는 러-우 전쟁 지속과 방역조치 완화를 통한 중국의 경제회복 등을 지적함
- LNG 공급부족은 '23년에도 이어지면서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 '23년에만 8천만 톤 규모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4년에는 4천만 톤으로 예상됨
- 유럽의 가스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LNG 공급부족은 이어지면서 내년 동절기('23/'24)도 힘든 시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과 아시아의 LNG 도입 경쟁은 '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6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2022.12.21~2023.01.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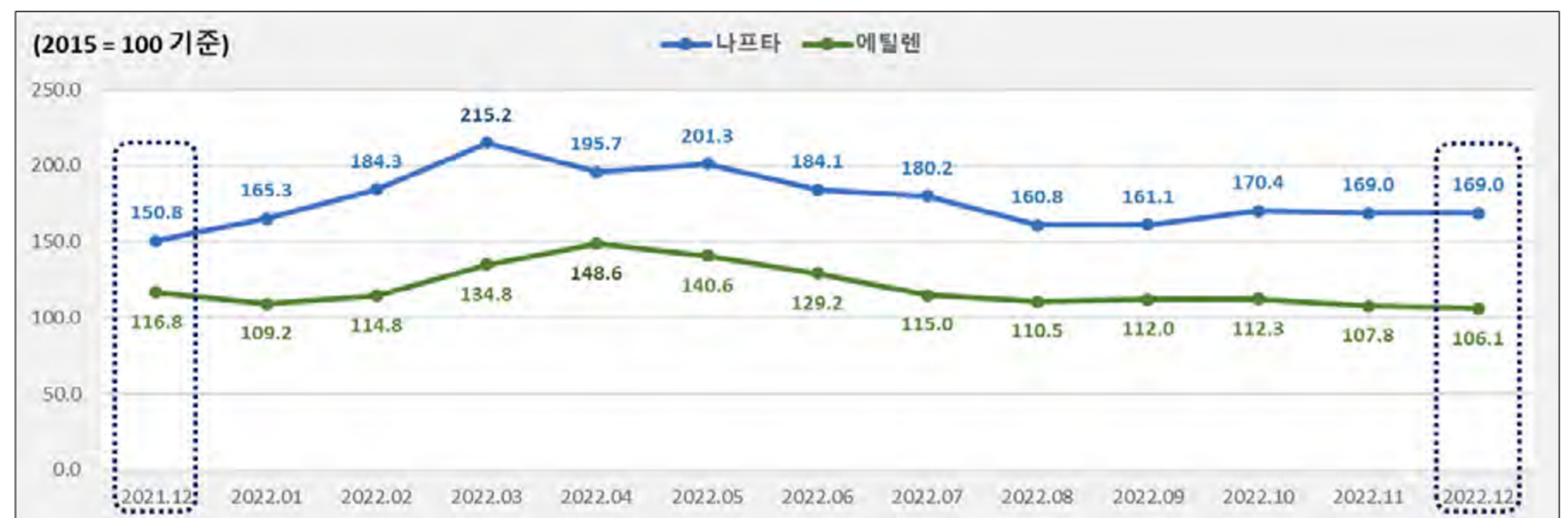
6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1.09),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1.12. 검색)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소폭 감소, 나프타는 유지

- » 유가 상승으로 생산했던 에틸렌 단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1.5%)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 하락했으나, 나프타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높은 수준임
-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프타는 경우 아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에틸렌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음
- 단가 유지를 위해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물동량은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50.8	165.3	184.3	215.2	195.7	201.3	184.1	180.2	160.8	161.1	170.4	169.0	169.0	0.0	12.1
에틸렌	116.8	109.2	114.8	134.8	148.6	140.6	129.2	115.0	110.5	112.0	112.3	107.8	106.1	-1.5	-9.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1.20. 검색)

② 현대중공업그룹,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수소 ‘혼소엔진’ 개발 성공⁶⁷⁾

- »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MW급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힘센(HiMSEN)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침
- LNG·수소 혼소엔진은 디젤연료와 LNG·수소 혼합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엔진임
- 이 엔진은 성능시험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질소산화물 규제 가운데 최고 등급인 티어3(Tier 3)을 충족, 이산화탄소 및 메탄 슬립(완전 연소되지 않고 배출되는 메탄) 저감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함
- LNG·수소 혼소엔진을 액화수소운반선에 적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증발 가스(BOG: Boil off gas)를 연료로 재사용하여 항해 중 손실되는 수소의 양을 최소화하는 등 선박 운용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임

67) 코리아워킹가제트(2022.12.27),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6645(2022.12.29. 검색)

- LNG·수소 혼소엔진의 적용은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상용 소규모 발전에 쓰이는 수소연료전지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기 부하의 변동에 따라 발전 출력을 조정하는 부하 추종 성능이 뛰어나 육상용 소형발전과 분산발전에서의 활용이 기대됨
-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LNG·수소 혼소엔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23년까지 수소 비중을 높인 혼소엔진 개발을 완료하고, '25년에는 완전한 수소엔진을 개발해 육·해상 수소생태계 구축을 완성할 계획임

③ 벨기에 앤트워프항, EU 지원으로 탄소 액화·수출설비 개발⁶⁸⁾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항만 프로젝트인 앤트워프@CCO₂수출허브에 1억 4,460만 유로(약 1,840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에는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 항만공사, 가스 회사 에어리퀴드, 가스송유관 운영사 플렉시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산화탄소(CO₂) 액화·수출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합작 사업임
- 앤트워프·브뤼헤항은 터미널용 토지를 확보해 액화 CO₂ 운반선이 접안 할 수 있는 안벽 등 부두 시설을 건설하고 에어리퀴드와 플렉시스가 터미널 운영사를 합작 설립할 계획이며, 앤트워프 산업 지역 발생 CO₂를 포집해 파이프라인으로 플랫폼까지 수송, 공용 터미널에서 액화·수출할 예정임
- 세 기관은 CO₂ 수출 능력을 초기 250만 톤 규모로 운영하다 '30년까지 1,000만 톤으로 확장해 앤트워프항 CO₂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임
- EU는 유럽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유럽연결기금(CEF)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종 투자 결정은 '23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 바스프(BASF)와 오스트리아 석유화학회사 보레알리스, 미국 엑슨모빌, 영국 화학회사 이네오스, 프랑스 에너지회사 토털 등도 참여하며, CO₂ 포집·저장 사업인 카이로@C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에어리퀴드와 바스프가 수출터미널의 첫 이용자가 될 예정임

④ 서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취소하고 수소 파이프라인 추진⁶⁹⁾

- »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Midcat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을 포기하고 그린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2년 12월 9일 스페인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Midcat 프로젝트 대신 서유럽으로 그린수소를 운송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와 마르세유를 연결하는 H2Med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
- H2Med 프로젝트를 통해 '30년부터 유럽연합의 연간 예상 수소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200만 톤의 수소를 운송할 계획임
- 현재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도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

68) 코리아워킹가제트(2022.12.27),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6678(2022.12.29. 검색)

6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1.05),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1.05. 검색)

급망을 개선할 수 있는 Midcat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H2Me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이 프로젝트는 수소 운송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천연가스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수소 운송을 옵션으로 고려하는 일반적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차별화 됨

⑤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 정기보수 마쳐도 가동률 제자리⁷⁰⁾

»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정기 보수를 마쳤으나 미진한 석유화학제품 수요로 인해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LG화학의 여수 NCC 공장 가동률은 80% 안팎으로 파악되며 지난해 말 정기 보수를 마쳤지만 가동을 멈추기 전과 비슷한 수준임
- 대한유화는 LG화학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정기 보수를 마쳤지만 공장 가동률이 이전 수준에 그쳤으며, 지난해 초 보수를 마친 롯데케미칼도 70~80%대 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다른 석유화학사도 상황은 비슷함
- 석유화학사들이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둔화로, 일반적으로 최근과 같이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뒷받침되면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가동률을 낮출 경우 고정비 부담이 느는 등 딜레마에 빠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은 올라가면서 원재료 가격 부담은 커진 데 반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제품을 사는 곳이 줄면서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됨
- 또한 석유화학사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역내 시장 수출 비중이 큰데, 중국 시장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위축되면서 당분간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업계는 업황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어려우나 현재보다 공장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게 됨
-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 석유화학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고 증가 우려로 업황을 보면서 가동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70)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1.09),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51(2023.01.12. 검색)

71)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1.09),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50(2023.01.12. 검색)

⑥ 에쓰오일, 세계 최대 규모 석유화학 크래커 건설 추진⁷¹⁾

» 아람코는 원유에서 석유화학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극대화 전략에 따라 자회사인 에쓰오일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스팀크래커를 건설할 계획임

- 샤흐 프로젝트로 불리는 본 프로젝트는 '18년 완공된 4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이며, 에쓰오일의 최대 주주인 아람코는 자회사 Aramco Overseas Company B.V.를 통해 에쓰오일 지분 63%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70억 달러 규모의 사힌 프로젝트는 원유를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람코와 루머스 테크놀로지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높이고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TC2C(Thermal Crude-To-Chemicals)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할 계획임
- 신규로 건설될 공장은 울산 내 기존 에쓰오일 부지에 위치하게 될 예정으로 '23년에 건설 공사를 시작해 '26년 완공, 연간 최대 32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폴리머를 생산하는 설비도 갖추게 될 예정임
- 스팀크래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 등의 부산물을 통해 다양한 일상 용품을 생산에 쓰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게 됨

⑦ 석유화학사, 신사업 확대 등 체질 개선⁷²⁾

- » 석유화학 업황 악화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석유화학사들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배터리·태양광 등 신사업에 조 단위 투자와 기존 사업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 롯데케미칼은 최근 연간 50만 톤의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준수한 수익을 내는 파키스탄 소재 자회사 '롯데케미칼파키스탄(LCPL)'의 보유 지분 전량 75.01%를 약 1,924억 원에 매각함
- 롯데케미칼은 작년, '30년 매출 50조 원을 목표로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사업에서만 전체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약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 4위 동박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여 배터리 소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한화솔루션은 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을 잇는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할 계획임
- 한화솔루션은 현재 연 1.7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조지아주 달튼공장을 증설해 내년에는 생산 능력을 5.1GW까지 확대하고 달튼 인근 카터스빌에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각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할 예정임
- 결과적으로 '24년까지 미국 내에서 총 3.3GW의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8.4GW의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LG화학은 배터리 소재사업에 집중하면서 1분기부터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약 170만㎡ 용지에 30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12만 톤 생산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12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 지난 4분기 석유화학부문의 300억~6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LG화학은 배터리 소재사업에 힘을 싣고, 양극재 포함 전지 소재사업 매출을 지난해 5조 원에서 '27년 20조 원까지 4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움

72)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1.18),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50(2023.01.19.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1. 31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